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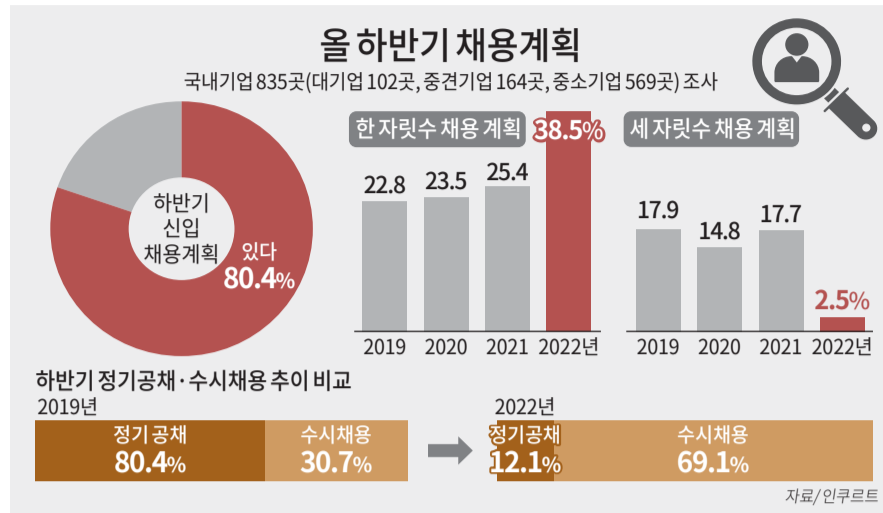
“창업 할래요”... 공무원직 인기 식어, 경쟁률 43년래 최저치

경총, MZ 미취업청년 창업인식 조사
73% ‘창업 준비중, 미래에 창업’ 희망분야 ‘숙박음식업’ 31% 응답
“기술형 창업 활성화에 지원해야”

대기업 80% 하반기 채용계획 확정
한자릿수 채용 늘고 세자릿수 줄어

미취업 청년들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창업’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대비되는 공무원직의 경쟁률은 올해 43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폭 떨어졌다. 다만 수시채용 체제를 유지하던 대기업들이 올 하반기 공채 레이스를 시작해 취업준비생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에 따르면 취업준비생들의 선호도를 살펴보면 미취업 청년 3분의 2 이상은 창업을 희망한 반면 공무원직 선호는 폭 떨어졌다. 경총이 최근 MZ세대(1980년대초~2000년대초 출생) 미취업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MZ세대 미취업 청년의 창업 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현재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미래에 창업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72.8%(중복 선택)로 나타났다.

다만 창업 희망 분야 조사에서는 생계형 업종인 ‘숙박음식업’ 응답이 31%로 가장 많이 우려가 제기됐다. 임영태 경총 고용정책팀장은 “창업 희망 업종으로는 생계형 업종이 많았는데 새로운 사업 기회에 도전하는 IT·정보통신·기술서비스와 같은 기술형 창업보다 ‘레드오션’으로 지적되는 생계형 창업에

청년들이 몰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성장 가능성이 크고 경제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형 창업이 활성화되도록 창업지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창업 동기는 ‘보다 자유롭게 일하기 위해’라는 응답이 50.5%로 가장 많았다. 사회 인식의 변화와 함께 워라밸이 중요시 되는 만큼 근무 조건 등이 직업 선택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보여진다.

자유로운 근무와는 거리가 먼 공무원 선호 열풍은 하락세를 타고 있다. 올해 9·7급 공무원 지원율은 각각 29.2:1, 42.7:1로 30년, 43년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취업준비생 사이에서는 워라밸을 중요시하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낮은 월급과 워라밸 보장이 아쉬운 공무원의 선호가 하락했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여러 분야의 구직을 도전했던 취업준비생 A씨는 “취업 시 급여보다는 워라밸을 선택하는 입장”이라며 “직업적 안전성을 고려해 공무원 시험도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투자되는 시간에 비해 메리트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올해 기준 최저시급을 주 40시간 노동의 월급으로 환산해 보면 대략 191만 4444원이다. 이는 공무원 9급 1~5호봉, 8급 1~3호봉의 월급 최저임금 기준보다 높다. 더불어 일반직 7·9급 1호봉 기준 세후급여는 각각 월 180만원, 160만원 정도다. 반면 올해 94개 대기업들의 대졸 신입 평균 연봉은 5356만원으로 5급 신입 공무원의 연봉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들이 정기공채를 줄이고 계열사별 수시 채용 체제로 전환하면서 취업준비생들에게는 취업 길은 더욱 좁아졌다. 하지만 삼성·SK·현대차·LG 등의 대기업들이 올 하반기 수시채용 계획 밝히면서 공채 레이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HR테크 기업 인크루트가 국내 기업 835곳을 대상으로 채용동향 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내 대기업 10곳 중 8곳(80.4%)은 올해 하반기 채용계획을 확정했다. 다만 채용 인원을 살펴보면 한자릿수는 38.5%로 지난해 대비 13.1%p 올랐고, 세자릿수 채용률은 2.5%로 7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해 대규모 신입 채용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미영 인크루트 대표이사는 “고용계약이 있는 일자리는 경제, 사회 등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경제침체가 지금보다 길어지면 기업은 물론 취업준비생도 부담이 가중된다”며 “취업준비생들은 지금의 상황을 고려해 이에 적합한 취업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고 제언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순천향대, 전고체전지 공정과정 줄여 ‘상용화 시동’

안옥 에너지시스템학과 교수
내열·내구성 뛰어나 안정성 높여
용량 늘려 전기차업계서 주목할 듯



해지기 때문에 전고체전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며 “기존 액체 전해질의 경우 폭발·화재 위험이 있어 안정성을 위해 안전 소재를 추가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전고체전지는 내열성과 내구성이 뛰어나 해당 부분을 축소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전고체전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전지 성능과 안정성이다. 먼저 전지의 밀집도를 높여 전지 용량을 상승시키다보니 전지 성능이 뛰어나다. 특히 이 부분은 전기차업계에서도 주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지의 용량이 증가됨은 물론이고 가격을 하락시

키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성능과 경제성을 모두 잡을 수 있다.

안 교수는 “전지 제조 공정 과정에서 기존에 있는 리튬이온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부품 소재가 많이 들어간다”며 “고체 전해질로 바꿀 경우 하나의 부품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연구팀은 기존 액체 전해질이 열화 메커니즘에 의해 전지의 용량을 향상하는 음극 리튬금속을 사용할 수 없던 문제점에 주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온에서 작동이 가능한 고분자 세라믹 복합전해질을 제시해 리튬금속을 음극으로 사용해 전지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확보된다는 점을 증명했다.

전기차가 주목되면서부터 배터리산

업이 각광받자 많은 연구자들이 이차전지의 폭발·화재 문제 해결을 위해 세라믹 소재를 이용한 전고체전지의 상용화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상온에서의 작동이 힘들다는 난제를 안고 있었다. 안 교수 연구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세대 미래 배터리인 전고체전지 기술개발에 나선 것이다.

이번 연구 결과는 ‘고성능 전고체전지용 Nb/Al 공동 도핑 Li7La3Zr2O12 복합 고체 전해질 개발’이라는 제목으로 재료과학 분야 세계적 권위의 국제 학술지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IF: 19.924, CHEMISTRY, MULTIDISCIPLINARY 분야 상위 5%, 2021 JCR 기준) 9월호에 게재됐다.

/신하은 기자

세종대-건국대 동아리 교류 도모 ‘광진구 점령전’ 연다

세종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 ‘시동’은 13일부터 10월 2일까지 건국대학교와 동아리 교류전 ‘광진구 점령전’을 공동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동아리 교류전은 광진구 지역의 청년 문화 발전과 두 대학 간의 건강한 교류를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광진구 점령전’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동아리 교류전은 각 동아리의 특징과 장점을 살린 네 가지 종목으로 구성된다.

전체 종목은 전시와 공연, 체육, e-스포츠이다. 전시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건국대학교 제1학생회관에서 이뤄지며, 각 대학의 사진동아리와 서예동아리, 천체관측 동아리가 참여한다. 공연은 14일 어린이대공원 열린무대에서 동아리의 댄스 공연과 밴드 공연을 선보인다. 체육은 20일부터 23일까지 테니스, 탁구, 축구, 농구, 배드민턴, 클라이밍, 농구 종목으로 대결을 펼친다. e-스포츠는 세종대에서 예선을 거쳐 선발된 한 팀이 건국대의 팀과 대결할 예정이다.

체육 종목과 e-스포츠에서 승리한 학교는 광진구 지역 모형 사진에 학교의 깃발을 꽂아 승리를 나타낸다. 더 많은 깃발을 꽂은 학교가 최종 승리하게 된다.

자세한 일정은 ‘광진구 점령전’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계정에서는 종목의 설명과 여러 이벤트, 대결의 하이라이트 영상이 게시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이재우 세종대 총동아리연합회 회장 경영학부 학생은 “광진구에 위치한 두 대학이 다양한 청년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행사를 기획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했던 동아리 문화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내년 공립학교 교사 총 166명 선발

서울시교육청, 시행계획 공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이 2023학년도 공립(국립·사립) 유치원과 초·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서울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14일 공고했다.

공립학교 교사는 교원의 정년·명예 퇴직, 학생·학급수 감축 등을 반영해 유치원 10명, 초등학교 115명, 특수학교(유치원) 10명, 특수학교(초등) 31명으로 총 166명의 교사를 선발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유치원)는 지난 7월 29일 공고한 사전예고 인원보다는 총 18명(초등 15명, 특수(유치원) 3명) 증가했다. 교육청은 신규 임용 대기 인원 감소 현황 반영과 미래교육 대

비를 위한 우수교사 확보의 필요성에 따른 선발 인원 확대를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소수 인원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사립학교 교사는 10개 학교법인(기관)으로부터 제1차 시험을 위탁받아 초등학교 4명, 특수학교(유치원) 1명, 특수학교(초등) 12명, 총 17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2023년과 2022년 공고를 비교했을 때, 유치원 교사 157명, 초등교사 197명, 특수교사 544명 등 총 899명을 덜 뽑아 모집 규모를 대폭 감소했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수만 개에 달하는 과밀학급 해소와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에 정면 배치되는 처사”라며 “학생 맞춤형 교육과 건강 보호,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서울 중구 청구초등학교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교원을 대폭 증원하고 신규교사 선발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수교사 임용은 전년 대비 61%p나 감소하면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습권 침해뿐만 아니라 특수교육 교사의 교권침해 문제도 심각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현재 국회에는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 법률

이 다수 발의돼 있고, 교육부도 교원정원 산정기준을 기존 교원1인당 학생수에서 학급당 학생수를 고려한 새로운 교원수급 모델로 전환해 교원수급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교원정원 산정기준을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의 관점에서 재설정하고 교원 증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신하은 기자